

#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공산성 발굴조사를 통한 재조명—

이 남 석  
(李南奭)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공산성의 유적조사와 정비·개발의 문제점

## III. 문제점과 개선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문화란 민족의 정신적 활동과 물질문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화란 민족의 생활양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각각 독특한 문화를 형성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지역, 그 민족의 생활양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반드시 그 지역, 혹은 그 민족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성을 간직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과거 우리의 민족문화를 참고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우리의 민족문화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현재 부여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규범이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문화의 개발과 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내놓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백제문화권의 개발 시책이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적 민족문화는 삼국시대에 그 틀이 형성되었고, 더불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민족문화의 틀

이 심화되고, 동질화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민족문화를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는 우리의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근간의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인 백제문화에 대한 개발 시책은 민족문화의 균형 잡힌 평가와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인지되면서,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할 일선 행정기관과 학계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 못지 않게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백제문화 그 자체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실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부의 의지 못지 않게 백제문화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줄 학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백제문화의 실체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해 줄 지방 행정기관의 안목과

대안도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계획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며, 이미 1978년부터 제기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발사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와 정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백제유적 중의 하나인 공산성의 발굴 현황 및 정비과정의 내용을 통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II. 공산성의 유적조사와 정비·개발의 문제점

백제문화를 오늘날 재조명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사유체계, 세계관 등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삶의 목표를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삶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던 생활무대나 그들의 사고체계 및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원, 그리고 그들이 사후에 묻힌 고분과 같은 유적은 문화권 개발의 기본이자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산성의 조사를 다른 유적보다 우선시 하였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시도한 것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확보된 작업이었다. 즉, 공산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백제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산성 조사가 결코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완료되고 말았다.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공산성의 조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래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공산성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0년에 공산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1993년까지 거의 매년 발굴조사가 계속되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성곽 유적은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다. 따라서, 성곽 유적은 다른 유적과 달리 어느 한 개인이 조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단시일내에 조사를 끝마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성곽 유적이 갖는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백제 문화권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두번째는 성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성곽 유적은 다른 유적과 달리 한번 축성한 다음 단기간, 혹은 일정 기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축과 개축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하나의 성곽 유적에는 여러 시기, 여러 문화가 복합적으로 잔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하나의 성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시기, 여러 층의 문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탕위에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히 특정 시기의 문화 내용만이 지나치게 크게 부각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의 공산성에 대한 조사가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공산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

셋째는 계속되는 조사를 통해서 종래에 논란이 되어 왔던 백제 왕궁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왕이 거처하는 왕성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핵심을 이루는 곳이다. 따라서, 백제인의 삶의 모습, 백제인의 사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공간으로서 성곽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추정 왕궁지의 존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

〈표 1〉 공산성 발굴조사 현황표

유 적 명	시 대	조사연도 및 기간	비 고
임류각지	백 제	1980년(9 - 10월)	방형의 누각형 건물지 초석 확인
만아루지	조 선		토성 상단에서 건물기단 확인
장 대 지	조 선	1982년(7 - 9월)	각변 3칸의 적심석 확인
연 지	조 선	1984년(5월)	장방형 석축 연못
만하루지	조 선	1984년(12 - 3월)	연지와 금강 사이의 루정
암 문 지	조 선	1985년 - 1986년	입구부는 파괴되어 있음
영은사 앞 건물지	백제 - 신라	1987년(9 - 11월)	신라 금동불 6구 수습
추정왕궁지	백 제	1989년(8 - 11월)	건물지와 원형연못 확인
중군영지	조선중기	"	8칸 건물지 및 부속건물지
28칸 건물지	통일신라	1990년(7 - 9월)	28칸 건물지와 4칸 부속건물지
광복루 광장·	백제 - 조선	"	건물지 파괴, 교란
굴건식 건물지	백 제	"	굴건식 주공의 건물지
12각 건물지 1	통일신라	1991년(5 - 8월)	12각 원형 건물지
12각 건물지 2	통일신라	"	대부분 파괴 유실
12칸 건물지	통일신라	"	적심석만 잔존
서문지 뒤쪽 유적	백제 - 신라	"	건물지, 원형 석축
저장혈	백 제	1993년(10 - 12월)	원형 12개, 방형 1개
건물지	조 선	"	적심시설 확인
영은사 앞 건물지	백 제	"	연못흔적 확인

다는 점에 자못 의미가 깊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공산성에 대한 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준비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성곽에 대한 조사는 시축 연대의 파악과 성벽 축조기술의 확인과 성내 남아 있는 유적을 통한 성곽의 성격이해 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벽을 처음 축조한 연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시축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벽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구 역시 시축 연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반증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성곽과 관련 없는 유적이 함께 공존할 가능성도 크고, 시축 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내에 분포하는 유구를 모두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산성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성벽의 단면 조사라던가 성곽자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축성 시기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부족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10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실제로 성내에 자리하고 있던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곽 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축성 시기에 대해서는 별반 지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한 예산이나 시간에 비해 얻어진 결과의 가치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굴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나 계획이 부족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체를 체계적으로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 라는 감이 없지 않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공산성을 발굴·조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백제시대 것보다는 그 이후 시기의 것이 훨씬 많음을 위의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백제 유적(백제 - 신라, 백제 - 조선 포함)은 모두 8군데에 불과한데 비해 신라유적은 6군데, 조선시대 유적 역시 8군데에 이르고 있다. 공산성에 대한 조사계획이 확정되고, 장기간에 걸쳐 예산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이 유적이 백제유적이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일

반 유적이 아닌 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과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결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지속되어온 공산성에 대한 조사가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번째는 발굴된 문화유적의 복원이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산성내에서 발굴조사 후 복원작업이 이루어진 유적으로는 동문지, 서문지, 임류각지, 그리고 석성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고증이나 사실에 부합되도록 복원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설령, 고증 작업을 거치고, 또한 실제 상황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복원작업이 전체 사업의 성격과 잘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예를 들어 동문이나 서문은 백제시대의 성문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성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백제성곽에 조선시대의 성문을 복원해 놓으면 자칫 이 유적을 찾은 관광객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결국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며, 문화재 복원사업이 전시효과 위주의 사업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상황과 잘 부합되는 지의 여

부도 중요하지만 복원작업이 과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과도 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에 대해서는 무조건인 복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구조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산성내에 있는 임류각지의 경우, 백제 동성왕 때 완성되어 주연을 베풀던 곳인데,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은 초석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백제건물로는 보기 어려운 누각형태의 건물로 복원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유적을 찾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안겨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복원인 만큼 오히려 그릇된 역사 인식만을 심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굴조사도 그렇지만 중요 유적을 복원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 모습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적의 복원에 대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복원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화유적은 조사 후 한번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번 다시 고쳐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적의 복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고, 원래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

던 것인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비교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성격 파악과 복원작업은 역사적인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개발사업 자체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는 복원사업이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에만 국한되었을 뿐 이러한 역사현장과 연계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이다. 역사유적의 관람이나 이해는 상당부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벤트성 사업과는 달리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거나 반복적 탐방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복원된 모습을 지켜보고, 한번 다녀간 유적지를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현장을 재현해 놓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녀가는 코스에서 숙박하는 코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유적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매년 투입되는 예산안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발굴조사가 되었든, 아니면 복원 사업이 되었든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다. 발굴조사를 책임진 사람이나 복원을 책임맡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그러한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정부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間に 걸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속에는 일말의 의구심, 내지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예산문제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단지 18%만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과연 취약한 재정조건을 지닌 지방자치 단체라던가 민자유치로 효과적 동원이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이 있다. 예산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예산안이 세워지고, 정해진 예산안이 그대로 투입되어 현장에서 조사하는 조사 책임자나 복원을 맡은 복원 책임자가 나름의 계획하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 Ⅲ. 문제점과 개선안

흔히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에 비하여 남아 있는 유적이나 알려져 있는 역사 지식이 빈약하다고 한다.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신라에 패함에 따라 많은 유적이 유실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라와 달리 백제는 수도를 두번이나 옮기는 과정에서 유적·유물이 분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적이 신라에 비해 적다고 한다. 실제로, 경주

와 공주·부여를 비교해 보면 경주 쪽에 비해 볼거리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주의 문화유적 중 상당수는 통일 이전의 삼국시대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통일 후에 이루어진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문화를 수평적으로 신라문화와 비교하여 이를 근거로 백제문화권 개발의 어려움, 내지는 불가론을 피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 신라의 문화유적이 경주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백제의 문화유적은 공주·부여지역 이외에 서산이라든가 예산, 익산, 영암 등지에 분산 분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화유적의 분산 분포가 백제문화권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각 지역의 문화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지역별로 특징을 강조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장애는 간단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백제 이전의 역사나 그 이후의 역사 중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를 개발하여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그러한 장애는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유적의 양이 부족하다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문화유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유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는 사실이다. 이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 사리감의 존재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거니와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 두고자 한다.

먼저, 찬란한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가치창조를 목표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놓은 후에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나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유적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의견 수렴없이 눈에 띄는 유적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 또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그때 그때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유적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진 공산성 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축성시기, 축성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무계획적인 조사와 개발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백제와 관련된 유적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역사상 얼마만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만큼 실제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학술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지방행정기관의 노력과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혀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학계의 종합된 의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과 이것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야말로 정부의 의지보다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이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양자를 책임지고 수행할 학계의 대표와 행정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그



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획과 예산조달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백제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만을 진행한다.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그러했듯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며 행정 편의적인 개발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차체에 학계와 행정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가 결성되어 장기간 계속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준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명칭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공식화된 이후 공주와 부여 등 백제문화권 핵심지역에 대한 문화재의 조사·정비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조사와 정비 작업을 살펴보면 특별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투자와 성과를 거둔 것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조사와 정비라는 것은 평소에 진행되어야 할 일반적인 문화재의 조사·정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란 특별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명칭에 걸맞은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 개

발사업이 공식화 된 이후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문화재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340억 원으로 전체 예산 1조 5천억원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백제문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며, 그런 점에서 백제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체계가 깃들어 있는 백제유적이야말로 백제문화의 가장 생생한 산 자료들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백제유적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을 정비·복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된 현재의 투자규모는 앞으로 전개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방향과 성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편 문화재 발굴과 복원에 필요한 예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역시 학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 내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방향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길어야 할 것과 짧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은 그러한 전담 기구의 논의를 거쳐 재편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문화재의 발굴·정비와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주·부여로 대표되는 백제 중심지역에서의 백제문화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인접한 다른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제는 신라와 달리 공주, 부여지역으로 천도함에 따라 한 지역에서 도읍하고 있던 시기가 그다지 길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이 빈약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의 약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문화유적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백제유적으로 알려진 주변 지역의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나 부여 못지않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중요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익산지역이라던가, 백제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불교유적, 백제의 호국정신이 깃든 성흥산성과 건지산성 주변, 예산의 임존성과 사면석불의 존재 등은 백제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줄 수 있는 유적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지역의 문화유적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종래와 같은 전시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지역

민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백제의 혼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정비·복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관광자원과도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종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크게 본다면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아울러 부족하게나마 정비·복원된 내용을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교통이라던가 숙박시설 등 제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충남 도민들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환영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본다. 하나는 충남 도민들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보존시켜 온 백제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싶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복원과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 실제로 느끼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경주지역이 공주나 부여보다 서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쉽고, 숙박 시설 등 제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변지역의 다른 관광코스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등 실제로 이 곳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반면에 공주나 부여지역은 1차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교통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외래 관광객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아직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눈에 띄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다른 관광코스와 연결시키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이유들이며, 이 때문에 공주나 부여지역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재의 정비·복원이 단순히 백제문화재의 재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매우 딱딱하고 학습적이기 쉬운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과 곁들여 백제문화재를 찾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라든가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공주의 곰나루에 공주문화관광단지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될 여러 유적들이 ‘백제 큰길’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재의 정비·복원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주변환경을 잘 보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환경정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백제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로의 개설이 원래의 목적인 백제유적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킨다든가, 혹은 지나치게 경제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의 순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된다면 정비와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자원을 파괴시키는 불행한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정비와 복원, 그리고 도로의 개설, 위락 시설의 설치 등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환경,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 음 말

백제문화권의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내용을 정비·복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간직해 온 충남인들에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백제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역발전이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정부의 계획안대로 향후 5개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예정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공약이 이미 1978년부터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화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종래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전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행정기관만의 힘만으로도, 또 학계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의 대표들아 절충안과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가 있어서, 이 곳을 통해 모든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만 이 일을 맡는다면 종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그러했듯이 가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백제문화에 대한 실체를 내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면 백제문화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발굴조사에 좀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발굴조사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다던가, 아니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들쭉날쭉 한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백제문화의 정비와 복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세번째는 문화재의 정비와 복원이 딱딱하고 학습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백제문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재의 정비·복원 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주변지역의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주 공나루에 들어설 공주문화관광단지 같은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 진다.

네번째는 문화재의 정비·복원도 중요하고, 정비·복원된 문화재를 서로 연결시켜 줄 도로망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여러 사업은 결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만다면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무색해지고 말 것이다. **열린중남**